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7년 12월 18일(월) 10:00
담 당 자	설광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(044-550-4092, sul@kdi.re.kr) 김윤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(044-550-4233, yoonk@kdi.re.kr)
배포일시	2017년 12월 18일(월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 국제컨퍼런스 개최

- 일 시: 12월 18일(월) 10:00~15:45
- 장 소: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
- 주 최: KDI

□ KDI는 12월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'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 국제컨퍼런스'를 개최함.

- 최근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담론에서 개발주체들 간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방안,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.

□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'개발협력에서의 공공-민간 파트너십' 세션과 '개발협력기관의 역할 및 파트너십'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

- 디크 니에벨 독일 前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빈곤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발협력에 책임감 있는 민간참여 확대와 목표지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
 - ‘개발협력에서의 공공-민간 파트너십’ 세션에서는 기업이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기회를 추구해야 함을 논의하고, 공여국 민간기업과 개도국에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공적개발원조(ODA)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개발재원 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파트너십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됨.
 - ‘개발협력 기관의 역할 및 파트너십’ 세션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민간 부문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각국의 개발협력 유관기관 역할 설정 및 파트너십 구축사례가 공유됨.
- 이번 컨퍼런스에는 디크 니에벨 독일 前 경제협력개발부 장관, 존성 미국 국제개발처 선임참사관, 야스유키 토도 와세다대학교 교수, 마뉴엘 토셀리 OECD 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등이 연사로 등장하며 개발협력 유관부처, 연구기관과 학계, 기업인 등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함.

❖ **첨부 1. 세부 일정**

❖ **첨부 2. 발표 요약**

❖ 첨부 1.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
09:30~10:00	등 록
10:00~10:40	개회식 환영사 설광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기조연설 디크 니에벨 前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
10:40~10:55	휴 식
10:55~12:35	세션 1. 개발협력에서의 공공-민간 파트너십 사 회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1. 공유가치창출을 거치며 책임에서 기회로 문휘창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2. 공여국 민간기업과 수원국 간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야스유키 토도 와세다대학교 교수 발 표 3. 원조, 투자 그리고 연계 효과성 실증분석 신원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토 론 신준호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이현훈 강원대학교 교수
12:35~13:45	오 찬
13:45~15:25	세션 2. 개발협력 기관의 역할 및 파트너십 사 회 고영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수실장 발 표 1. 한국 ODA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행 평가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 표 2. 민간재원 조성 존 성 USAID 개발협력 선임참사관 발 표 3. 기로에 선 개발협력* 마뉴엘 토셀리 OECD 개발센터 이코노미스트 토 론 김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·평가실장
15:25~15:45	폐회사 설광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

* 발표자 요청으로 발표요약에서 제외

❖ 첨부 2. 발표 요약

기조연설

'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'

디크 니에벨 前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

- 빈곤 근절이라는 난제 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식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적 파트너십의 필요성 제시
 - 디크 니에벨 前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, 과거 지배-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고 오늘날 진정한 협력관계로의 이행을 도모할 것을 주장
 - 더불어 성공적인 파트너십 달성에는 국제기구(EU, UN 등)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시사
-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추구 및 사회 재건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확대와 원활한 기능이 정립돼야 하며, 위 목적 달성에는 보다 목표지향적인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함.
 - 정부는 책임 있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, 지속가능한 자본의 흐름과 투자를 이끌 체계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함.
 - 책임성 있는 민간 부문은 경제적 성장 및 빈곤 감축에 절대적 전제조건이며, 양호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향후 개발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.

세션 1. 개발협력에서의 공공-민간 파트너십

발표 1. 공유가치창출을 거치며 책임에서 기회로

문휘창 서울대학교 교수

- 기업의 사회적 책임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, CSR) 실현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회(Corporate Social Opportunity, CSO)를 추구하는 추세로 전환
 - CSR은 사회적 가치만 창출하는 반면, CSO는 사회 및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
 -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강화 정도를 고려해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4단계로 제시
- 공유가치창출(Creating Shared Value, CSV)의 전략적 함의
 - 각 산업별로 추구할 중점 CSO는 다르며, 각 산업의 핵심역량을 고려해 CSO를 통한 기업의 시너지와 공유가치창출에 힘써야 함.
- 향후 기업은 CSR만이 아니라 CSV를 통해 CSO를 추구하는 효율적 기업이 돼야 함.

발표 2. 공여국 민간기업과 수원국 간의 원원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

야스유키 토도 와세다대학교 교수

-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, 동시에 전통적 공적개발원조(ODA)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
 - 이러한 배경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원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여국 정부는 ODA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국의 민간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필요
-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수원국과 원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제시함.
 - ODA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국의 산업 발달을 지원하고 향후 발전된 산업을 통해 일본경제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.
 - 수원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개도국 내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면,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일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.
- 이제까지는 개도국이 글로벌 공급사슬(Global Supply Chain)에 포함돼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ODA를 전개해 왔으나, 향후엔 더 큰 상호이익을 위해 글로벌 지식네트워크의 틀 안에 개도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ODA를 추진해야 할 필요

발표 3. 원조, 투자 그리고 연계 효과성 실증분석

신원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

-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SDG 체제하 ODA의 효과성 도모를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과 수원국-공여국 간 상생에 주목
 - ODA 금액(약정액 기준)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인 반면, 공여국 자국의 이익과 연계된 구속성 원조(Tied Aid) 금액은 2005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
 - 공여국의 이해와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필요
- 중저소득국(Lower-middle Income Countries) 경제발전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(FDI)와 ODA 간 상호보완 효과가 두드러져
 -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중 중저소득국 단계(1977년~1988년)에서 FDI와 ODA 간 상호보완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
 - 해외원조자금을 통해 국내 민간영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, 원조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
- ODA와 FDI 개발재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시사점 제공
 -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ODA와 FDI라는 공공과 민간의 개발재원 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민관협력 파트너십 모델 개발이 필요

세션 2. 개발협력 기관의 역할 및 파트너십

발표 1. 한국 ODA 정책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행 평가

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

-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이루며 ODA와 ODA PPP(민관협력)의 후발주자로 등장, 개발도상국에 정치적·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
 - (한국 ODA 강점) 현 ODA 규모 증대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률 및 제도적 틀을 수립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개발협력에 대한 상호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.
 - (한국 ODA 약점) 국민총소득(GNI)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ODA 비율과 유·무상 차관, 중앙 및 지방 정부, 각 원조기관 간 분절화된 ODA 집행 시스템 존재
- 민관협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조성돼야 하며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협력 파트너기관 간 의사소통이 필요함.
 - 초기 효과적인 개발협력 이행을 위해 창조적인 PPP를 조성해야 하며, 민간 파트너들에게 사회적·경제적 인센티브 제공
 - 더 많은 비교사례 발굴을 통해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하며, 체계적인 민관협력 제도화를 추구해야 함.

발표 2. 민간재원 조성

존 성 미 국제개발처(USAID) 개발협력 선임참사관

- 미 국제개발처(USAID)는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과제인 개발재원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 - SDGs 목표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민간 기관들과 금융협력을 진행 중
 -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촉진 및 재원조성이 가능하며, 이는 포괄적·지속적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향후 민간과 개발 부문의 혁신적 연대를 가능케 함.
- USAID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재원 조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수단과 자원들을 활용
 - USAID의 민간 부문 파트너십 일환인 ‘Global Development Alliances(GDAs)’는 개발재원 조성에 필요한 대표적 활용수단
 - GDAs를 통해 USAID의 핵심사업 이익 증진 및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며, 보다 지속가능한 영향력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USAID의 자산과 전문지식 활용 및 개발